

전북연구원 **함께 혁신, 함께 성공, 새로운 전북** 보도자료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문의 : 사회문화연구부 장세길 연구위원
(063-280-7173)

▪담당자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41)

보도시점 : 2022년 07월 19일부터

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, 선제 대응 필요

전북연구원,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필요성 및 실천과제 제안
국정과제 <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> 관련, 도·시군 협력 공동 대응 필요

- 대구시는 육상, 양양군은 윈드서핑, 광주시는 수영 등 도시마다 대표하는 스포츠가 있으며, 이러한 도시는 관광 활성화,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스포츠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효과를 봄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이슈브리핑(장세길 연구위원)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며, 이와 관련하여 국정과제에 포함된 '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'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함
-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"지역 특화 스포츠도시"를 2023년에 5개 도시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. 정부가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인데, 3년 150억 원(국비 50%)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2년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짐

-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,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차 도시 지정(강릉시, 서귀포시)에 그쳤던 스포츠도시 지정사업(스포노믹스)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바, 기존 사업을 토대로 세부 계획을 전망하여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
- 이와 관련하여 장세길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선정기준에 따른 시군별 적합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함. 2016년 사업의 선정기준을 참조하면, 1단계 선정기준은 인구 5만~50만 명 미만으로, 군산, 익산, 남원, 김제, 정읍, 완주, 고창, 부안이 포함됨
- 2단계 선정기준은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임. 구체적으로 최근 5년 이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범위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혹은 동·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거나 개최 예정인 도시를 말함. 장 연구위원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인 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대회(2023)의 종목별 경기가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열리므로 14개 시군 모두 2단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함
- 2016년 사업에서 제시된 3단계 선정기준은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전체 면적이 13만km² 이상,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.6m² 이상임. 이에 대한 시군별 실태 파악이 필요함
-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지정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나 전라북도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다른 광역시·도에 뒤처지므로 도-시군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. 내년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, 그 이전이라도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별로 스포츠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, 특화 종목 발굴 등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함

- 또한, 2016년 추진 사업기준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6개 시군이 1단계 인구 기준에서 탈락함.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사업이 균형발전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인구 5만 명 미만인 도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 선정기준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함